

전일동향

전일대비 5.40원 상승한 1,473.20원에 마감

8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5.40원 상승한 1,473.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20원 상승한 1,471.00원에 개장했다. 상승 출발한 환율은 유로화, 엔화 강제 전환에 따른 미 달러지수 하락에 1,466원까지 하락했다. 다만, 중국 위안화 약세,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도 등에 재차 반등하며, 1,473.20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7.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06.80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71.00	1482.30	1466.30	1473.20	1470.20
엔화	992.69	1010.74	990.88	1006.80	-	
유로화	1600.63	1620.30	1599.52	1614.06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78	-7.2	-15.04
결제환율(수입)	-1.2	-6.31	-13.24	-24.8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위안화 약세에...1,48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6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73.20) 대비 12.70원 상승한 1,483.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중 관세 갈등 격화 속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어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응하여 9일(미국시간)부터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총 104%의 관세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며 미국 추가 관세 위협을 상쇄할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 위안화 평가 절하를 암시했다. 또한, 역내 위안화 고시환율을 '23.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7.2038위안으로 고시했다. 이에 역외 위안화는 1% 이상 급락하며 7.426까지 급등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야간장에서 장중 1,482.3원까지 고점을 높이며 연고점을 경신했고 1,479.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일 환율은 관세 리스크 고조에 따른 위험 회피 분위기 가운데 위안화 약세,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도 연장 등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국 개입 경계감, 국민연금 환헷지 물량 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77.20 ~ 1491.8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6424.8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2.70원 ↑
	■ 美 다우지수 : 37645.59, -320.01p(-0.8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33.9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18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